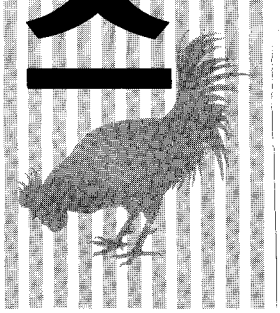
WORLD POULTRY NEWS

해외양계뉴스



EU

금년 가금육 수출 지난해와 비슷할 듯

EU의 지난해 가금육 수출은 동물용 부산물의 사료 금지조치로 인한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9년 1.03백만톤보다 많은 1.05백만톤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U의 주요 수출 지역은 동유럽(러시아 포함)으로 전체 수출물량중 42%를 수출하였으며, 중동(20%), 아프리카(17%), 아시아(10%) 순으로 나타났다.(WP)

표. EU의 가금육 수출국 및 현황

2000년도		1999년도	
국 가	양(톤)	국 가	양(톤)
러시아	272,742	러시아	260,389
사우디아라비아	107,487	사우디아라비아	127,849
홍콩	69,463	홍콩	90,566
아랍에미리트	62,594	아랍에미리트	65,323
베닌	52,714	베닌	42,615
예멘	39,541	예멘	35,575
중국	23,546	중국	28,414
오만	23,044	오만	26,327
쿠바	21,852	쿠바	22,774
남아프리카	20,647	남아프리카	21,459
미국	477	미국	622
기타	352,328	기타	412,491
계	1,046,434	계	1,032,113

*자료:Erostat, USDA

미 국

계란 소비량 꾸준히 증가

미국의 1인당 계란 소비가 1945년에 40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생활 방식 변경,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1991년 234개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계란과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이롭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확산되면서 다시 계란 소비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58개를 보인 바 있다. 1995년에 소비가 주춤했던 것은 고온 등 기상악화로 닭 사육수수가 줄어든데 원인을 찾고 있다.(AEB)

표. 미국의 1인당 계란 소비량

년도	194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개수	402	234	235	236	239	236	238	240	245	256	258

캐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수수께끼는 어느 나라든 흥미로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카나다의 양계관련 문헌에는 달걀이 닭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이 문헌은 6,000년전 중국에서 오리와 거위로 추정되는 계란층(화석)이 발견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알품는 닭은 인도 건국 이후 2,000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단 15세기 서양 문헌에 알품는 닭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달걀이 닭보다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CEMA)

일 본

비료공장의 연기가 닭에게 악영향

일본 야마구찌현(山口縣)의 한 산란계 농장에 인근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사에 영향을 주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폐사가 발생하자 양계업자는 비료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비료업자는 양계농가에게 1억4천만원(약 1,3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관은 재판에서 '공장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호흡기 곤란을 일으킨 닭들이 폐사하고 산란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은 비료업자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鷄の硏究)

인 도

닭고기 덤핑 수입에 부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도의 양계산업이 미국으로부터의 닭다리 수출공세에 직면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것으로 알려진 부위는 닭다리로 오래되고 신선도가 떨어진데다 가격마저 헐값에 제시되고 있어 정부측에서도 1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닭다리를 백색육으로 인식하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싼가격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밀려올 경우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WP)

태 국

맥도날드사 닭고기 공급 확대

태국에서 패스트 푸드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맥도날드사는 금년들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판매량을 제치고 닭고기의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15개 점포를 확장하여 총 101개의 점포를 확보하게 될 맥도날드사는 현재 소고기 취급 비율이 10%선에 머물고 있으며, 닭고기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신상품 출시도 늘고 있는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페퍼치킨버거 1개의 가격이 19바트(547원)에 판매되고 있다.(WP)